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4>



불구대천의 원수 (1)

부처님은 팔지가 아팠습니다. 아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당에서 스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시비를 가리느라 급기야 스님들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퍼부어 대고 거친 꼴짓을 해대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처님은 싸움의 당사자인 스님들을 불러 앉혀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최소한 조리에 맞지 않는 몸짓이나 말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몸싸움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함께 자리에 앉으라.”

그런데 또다시 싸움이 일었고 스님들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느라 그야말로 ‘입 속의 칼(劍)’로 상대를 사정없이 찌러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수행자들의 갈등과 대립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처님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일 때마다 당사자들을 불렀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님의 중재와 훈계조차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모아 이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하박가>라고 하는 율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았습니다. 그는 거의 제정신을 잃고서 부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발견한 디기타왕은 허공에 대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긴 것을 보지 말고 짧은 것도 보지 말아라. 원한은 원한으로 누그러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아닌 것에 의해서만 원한은 누그러진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사정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수근 대었습니다.

“이 왕이 무서운 나머지 미쳐버렸구먼. 허공에 대고 지금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하지만 디기타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아버지의 외침에 아들이 멈춰선 사이 사람들은 디기타왕과 왕비를 남문으로 끌고 가서 사지를 잘라 죽인 다음 시체를 거두지도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야 했던 아들 디가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였던 터라 병사들에게 술을 먹여 쓰러뜨린 뒤에 부모의 시신을

나라 빼앗고 부모마저 처참하게 죽인 왕을 향해 원한의 칼 갈던 다가부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주 먼 옛날 코살라국에는 디기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힘이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항상 이웃 카시국의 브라흐마닷타왕의 침공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디기타왕은 브라흐마닷타왕이 침공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스스로 왕위를 물려냈습니다. 왕비와 단들이 성을 빠져나갔고 그 나라 는 단 한 사람의 희생도 보지 않고서 브라흐마닷타왕에게 점수되었습니다.

한편 왕비는 뒤늦게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디가부.

하지만 언제나 살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디기타왕은 아들의 목숨이라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을 멀리 보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예견은 정확하였습니다. 결국 왕궁에서 이발사로 있던 자의 밀고로 왕과 왕비는 브라흐마닷타왕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카락도 깎고 밧줄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날카로운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사방으로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마침 오래도록 집을 떠나 있던 아들 디가부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찾아왔다가 자기 부모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거두어 화장을 치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시신을 오른쪽으로 세 번 돌면서 예를 올린 뒤에 그는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통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울음을 토해내었습니다.

가슴 속의 울분이 다 터져 나올 때까지 그의 눈물과 절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없는 눈물을 쏟아낸 뒤 그는 부모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왕의 최측근이 되어야 했고 그는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결국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냥을 나선 왕의 말을 요령껏 몰아서 일행들로부터 왕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숲 속에 왕과 단 둘만 남겨진 디가부, 게다가 왕은 말을 달리느라 피곤하다면서 디가부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시라도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놓아본 적이 없는 디가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디가부는 가만히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계속)

■ 이미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불법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 스님은 부처님 법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발심을 하고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관음사로 성공 스님을 뵈러 가는 길, 공연하 마음이 서둘러진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문 열어나와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괜스레 조바심까지 난다. 연젠가 스님을 뵈러갔을 때, 절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던 모습에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스님의 그 모습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보석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고 감동이었다.

구덕 터널로 향하던 대로를 비껴나 우회전하자 곧바로 꼬불꼬불 좁은 마을길이 이어진다. 스님이 계시는 관음사가 머지않았다. 마을속에 각인된 스님이 벌써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짓 하는 듯 하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마음에 온기가 더해온다.

“추운데 고생이 많네. 어서 들어와.” 인기척이 나기가 무섭게 어느새 마루 끝에 나와서 계신다. 좀 전에도 손님을 만나고 계셨는데 어쩔 지러도 반갑게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바로 부처야.” 사람을 대하는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 말을 웅변하는 듯 하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여쭙려 왔습니다.”

“예전부터 묵은 마음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준비로 동지를 지나왔는데, 붉은 팔죽을 끓여서 먹곤 했어요. 붉은 색깔은 불로써 모든 재앙을 태워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죽을 아무리 마당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가 있습니다. 또 인도, 천도, 수라라는 세 가지 세상이 있지요. 이것이 삼선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부의 세계이다보니 그 모두를 육범(六凡)이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 네 가지는 성인의 세계입니다. 여섯 가지와 네 가지를 사성육범(四聖六凡)이라 하고 그것을 총칭해서 십법계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나 법부나를 떠나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성문 연각 보살 불의 세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견성성불해서 부처를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불성이 있고, 지옥에 있는 이도 불성이 있고, 전부 불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공 스님

(부산 관음사 주석)

가득 뿌려도 모든 잘못된 생각을 태워 없애겠다는 마음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묵은 때가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 때는 바깥의 일과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때를 없애야 진정한 송구영신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발심을 하고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

스님은 일생을 법사로 활동해왔다. 그래서 법문에 탁월이 없다. <법화경> 약초유품의 비유를 들어 법문을 시작했다.

“법법은 그대로 팔만장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 수기설법을 한 것이 팔만장경입니다. 그런데 근기에 맞춰서 설했다고 하는 것을 <법화경>의 약초유품에 말씀하신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근기에 맞춰서 설했다기보다는 근기에 맞게 받아들인다고 봐야 합니다. 약초유품에 보면 중생은 산천의 초목총림이요, 부처님의 법은 비와 같다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우(法雨)는 초목을 분별치 않고 내리지만 초목총림이 근성에 따라 큰 나무는 크게 크고, 작은 나무는 작게 크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법문이 설해진다 해도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님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한 쪽으로 흐르고 있어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고준한 법문이 소용이 없어지고 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가 있습니다. 또 인도, 천도, 수라라는 세 가지 세상이 있지요. 이것이 삼선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부의 세계이다보니 그 모두를 육범(六凡)이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 네 가지는 성인의 세계입니다. 여섯 가지와 네 가지를 사성육범(四聖六凡)이라 하고 그것을 총칭해서 십법계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나 법부나를 떠나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성문 연각 보살 불의 세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견성성불해서 부처를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불성이 있고, 지옥에 있는 이도 불성이 있고, 전부 불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속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적인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때어한다.”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할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정확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할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속뜸을 뜸 수 있다.

오양속뜸기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속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정확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속뜸기 (무릎관절)

제품의 특징

- 최후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정확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최후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양적운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님에 의해 개발

의용용구 제조등록번호: 제 03092호
의료용구 제조등록번호: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JC07019-3001

살균소독번호: 제 030942호
살균소독번호: 제 0318973호
살균소독번호: 제 0328990호
의약품제조번호: 제 0344295호
의약품제조번호: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1호
ISO 9001 인증번호: 제 011295호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오양속뜸기, 음양속뜸기, 오양적운기 등을 판매방 및 사무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특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연방본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불자님들을 위한 12支 건강 지킴이 메달

인연 닿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12지 건강 지킴이 1호(취미)에서 12호(제지미)까지와 수비 경명주사와 육기의 기운으로 전자파를 차단하는 핸드폰 고리를 오랜 기간 연구하여 정성을 다하여 개발·사단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12지 띠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분명 건강과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개요
99%의 은 (중량 - 메달 5돈, 목걸이 10돈)

특징
앞면은 12지신 문양은 건강과 행운을 함께하며, 뒷면의 육기(피라미드원리)에서 나오는 특이한 기(氣)를 발생하여 생기(生氣)를 복돋아 주며, 자연 식물성 특수 접착제로 배합하여, 천연광성인 최고급 수비 경명주사와 금니로 마무리 재색

12지 건강 지킴이 메달 사용효과
천연광성인 최고급 수비 경명주사와 금니재색 및 육기의 기운이 함유된 제품이기에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신경안정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며 전자파 차단과 정전기 방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명주사의 효능
본초경에서는 경명주사는 “맛은 달고 약성은 약간 차고 독이 없으며 심경에 들어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진정하여 보기(補氣), 지당노(治糖尿) 등을 치료한다” 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신을 안정시키고 경풍을 멈추며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때문에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수면장애, 건망증, 경풍, 경간, 정신병, 열이 심하고 정신이 흐리며 헛소리 하는데, 피부가 현대들에 쓰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기, 간질, 우울증 등의 신경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금라성 (錦羅星)
인연처 : 051)646-2700, 632-0173 부산 진구 범천 1동 845-11(3층)
연제나 건강만 삶과 행복만 나날을 기원합니다.....

집중력의 향상, 질병치유 효과 증대

농부가 농사 안 짓는 것과 같아”

바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란 말입니다. 사성육법의 전부가 불성이 있어서 견성성불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등성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평등성지는 갖고 있지만 앞의 약초유품의 비유에서처럼, 현실은 천차만별로 떨어져 있어요. 지옥은 자유이요 아귀는 아귀요 축생은 축생이고 인도는 인도로 떨어져 차원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그것을 토대로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다. 천차만별의 차원으로 떨어진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는 벗어났지만 수라 천도 인도 삼선도의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축생입니다. 사람에서 제일 아래 차원으로 가까운 것이 축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높게 치면 한량없이 높으면서도 자칫하면 축생에 가까워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스님은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원인을 교육의 부재로 꼽았다. 합리적인 교육이 없이 글과 기술만 영무세처럼 익히는 교육은 질름 밭이 교육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불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교육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교육이 없다고 하면 전국에 교육기관이 수도 없이 넘쳐나는데 왜 교육이 없다고 하는지 따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敎)라는 글자는 효도 효(孝)자에서 글월 문(文)자로 만들어져 있는 뜻글자입니다. 교육의 모체가 효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효는커녕 윤리도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식인 양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글을 아무리 잘하고 기술을 아무리 잘해서 돈벌이를 많이 하더라도 인간 본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사느냐는 합리적인 교육이 있느냐 없는 나쁜 문제이고 그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고차원의 이름을 붙이는 인간 존재가 너무 악한 쪽으로만 흘러가나...”

스님의 안타까움은 몹시 커 보였다. 그러나 스님은 어둠 뒤에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희망론을 내놓았다.

마음속 묵은때 없애야 진정한 ‘송구영신’ 한국불교, 명예·물질욕 비우고 변화해야

“20세기가 저물어가는 밤이었다면 21세기는 낮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해가 지는 서쪽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 뜨는 동쪽의 시대가 됩니다. 동양의 사상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맥을 잃고 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흐름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동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불교가 세계를 이끌어갈 시대적 흐름 앞에 섰는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불교가 세계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그 시대적 흐름을 자각하고 준비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스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정신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묻어있다. 그러나 스님은 한국 불교가 뼈를 깎는 자기 변화를 거듭해야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상당히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불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불교를 운영하는 스님들이 잘못돼 있어요. 많은 스님들이 감투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새로워지려면 명예와 물질을 떠나서 비우고 비워나가야 합니다. 때는 이미 불법의 시대가 왔는데 한국불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흐름에 낙오되고 맙니다. 삼차원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여의어야 합니다. 물질의 세계, 공기의 세계, 진공의 세계 중 진공의 세계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불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차원의 물질적인 세계에 집착해 명예와 물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21세기 불교의 중심 국가는 우뚝 서기 위해 스님이나 불자들이 진공공유의 참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변화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심시불, 비심비불을 지나 무심무불, 즉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는 참불교의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공짜가 없듯 맹목적인 희망론도 없다.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변화와 과제가 필수적이다.



법어를 그리고 있는 상공스님.

“법은 실천입니다. 참다운 인간의 길을 열어주는 불법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대전제로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곡식 키우면 열매 맺듯 중이 됩니다. 신행행증(信解行證)의 원리입니다. 행이 없이는 이론은 농학 박사도 농사는 안 짓고 방안에 누워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믿으면 믿은 그것을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서 생활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 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며,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 뜻이 깨어지면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달리 다른 말을 찾지 말고 이 하나라도 행으로 옮겨 보세요. 백 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글·사건·천미희 기자

를 받았으며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금정선원, 정혜사, 도리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지냈다.

40년 전 오대산에서 기도 중 금강경을 삼일 만에 외운 스님은 우리 나라 최초로 금강경 독송 테이프를 만들었다. '내 독경소리를 듣고 신심을 내어 더욱 정진한다면 불은을 갖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스님의 금강경 독송은 휴대폰 연결을, 벨소리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주경 스님의
스님이야기

단호 스님

수덕사는 비구니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미루어 짐작된다. 만공 대선사께서 근대한국불교 최초로 비구니선원을 건립해서 많은 비구니선지식이 배출된 까닭이 첫째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나의 행차시절에도 남행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20여명의 여행자들이 있었다. 그때 수덕사는 본사 주지스님께서 행사자들에게 직접 <초발삼자 경론>을 강의했는데, 남녀 행사자들이 함께 모여 공



그림·문병성

부를 했다. 단호 스님도 그렇게 같이 <초발삼>을 배운 행사도반이다. 당시 행사들은 산중의 네 곳에서 살았는데, 수덕사와 총림선원 정혜사에 남행자들이, 비구니선원 견성암과 일엽 스님이 있을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서 생활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 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며,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 뜻이 깨어지면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달리 다른 말을 찾지 말고 이 하나라도 행으로 옮겨 보세요. 백 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나의 행차시절에도 남행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20여명의 여행자들이 있었다. 그때 수덕사는 본사 주지스님께서 행사자들에게 직접 <초발삼자 경론>을 강의했는데, 남녀 행사자들이 함께 모여 공

부를 했다. 단호 스님도 그렇게 같이 <초발삼>을 배운 행사도반이다. 당시 행사들은 산중의 네 곳에서 살았는데, 수덕사와 총림선원 정혜사에 남행자들이, 비구니선원 견성암과 일엽 스님이 있을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서 생활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 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며,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 뜻이 깨어지면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달리 다른 말을 찾지 말고 이 하나라도 행으로 옮겨 보세요. 백 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화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사들에 비해 다른 원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화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행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화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째지고 꼼꼼하지 않아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 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촌회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금강경 독송테이프 첫 제작...60여년 법사생활 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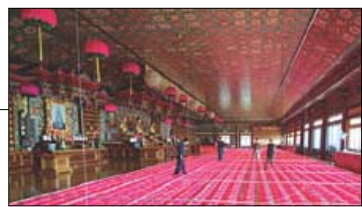
성공 스님은 “이름과 물질을 구하는 것은 아침이슬 같다”

성공 스님의 일생을 관통해온 철학이다. 갑부유, 명예욕 없이 60여년을 법사생활로 일관해 온 스님은 아직도 법문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법석마다 '구름 벗겨지면 바로 달'이라는 변곡점은 가르침으로 망명을 몰라 내리놓으라고 대중을 후려친다.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성공 스님은 1941년 해월선사의 만 상좌 운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전선(케이틀) - 천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연등 자동장치 세를 중 한불이 준공된 모습 (불을 켜올때의 전경)

천덕연등에서는 KS케이틀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등 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십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



종 등



팔각봉축접등



유 등



공단 등



육각조립 등



팔각조립 등



주름 등(만월봉축 등)



공단황금 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031) 792-6288, 794-4055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찬덕연등 / e-mail: chanduk21@hanmail.net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 등, 종 등)